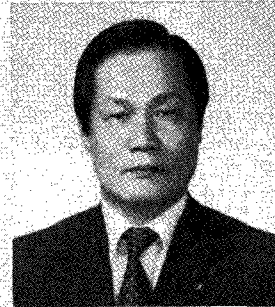


原電地域 疫學調査 客觀性 없다

—성급한 結論은 事業推進에 악영향—



金 善 稔

〈韓國原子力産業會議 常勤副會長〉

최근 신문은 靈光원자력발전소 사태경비원 부인의 「뇌 없는 태아 유산」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한데 이어, 이번에는 반핵단체로 알려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조사한 영광주민의 역학조사결과를 대서특필함으로써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무뎌어나 기형아의 출산·유산은 과거에도 종종 있는 일로서 이것을 굳이 배우자의 직업과 연관시키려는 것은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다.

더구나 남편 김씨는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4km 거리에 있는 사원사택 경비원으로 서 발전소의 어떠한 영향도 받을 위치에 있지 않으며, 한 두해 전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작업인부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나 그가 일한 작업장소는 방사선과 무관한 터빈·발전기건물 내로 알려지고 있어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피폭되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포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견해는 임신부가 직접 방사선에 과다피폭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그의 남편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영광주민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역시 원자력산업을 추진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가는 억지 주장이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420기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곳 주민들은 이같은 피해를 모르고 있으나 유독 한국에서만 그 사실이 밝혀졌다는 말인가. 역학조사가 반핵단체에서 실시되었다는 사실도 공정성을 잃은 처사이거니와 그 발표내용도 타당성이 희박하다.

